

다. 이런 나라에 만들어지는 각종 공산품의 국제적 신인도가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서울대학교가 세계적 명문대학이 되고 나면 그 열매는 고스란히 국가와 민족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울대학교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 교수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인문대학 언어학과 명예교수 이 현 복

### 1. 정치교수는 캠퍼스에서 사라져야 한다

지난번 대선과 총선을 겪으면서 폴리페서(polifessor)란 신조 합성어가 나왔다. 정치판을 기웃거리며 대학과 정치에 양다리를 걸치는 정치교수를 뜻하는 말로 탄생하였다.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 가운데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관직이나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어 뜻있는 교수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였다.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그 도를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교수면 교수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만 교수직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교수가 있어 학내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정치교수, 이른바 폴리페서는 우리 캠퍼스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대학 당국은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대다수의 동료 교수들은 믿고 있다. 정치판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면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교수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을 더는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 교수에게 있어서 대학은 학문의 전당이지 정치인이나 고위 관리의 양성소나 배출대가 아니다.

우리 교수들 가운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대통령 선거철이 돌아오면 어느 후보의 캠프에 가서 일을 거들까 하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더러 눈에 뜨인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그럴까? 첫째, 이런 이들의 마음에서는 이미 연구나 강의 같은 교수의 기본 임무는 안중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새는 새일지라도 나르지 못하는 펥귤 같은 새(교수)라고 해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권 훼손이다. 교수가 학기 중에 국회의원 후보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면 학생들은 그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강의를 제대로 수강할 수가 없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교수들이 연년세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자기 분야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더 보람 있고 명예로운 일이 따로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어찌하여 일부 교수

들은 장·차관 같은 정부 요직이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면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것을 더 큰 명예로 알기 때문일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양자택일을 해야지 교수의 기능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교수직에 매달려 있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이기적인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도하의 모든 언론이 이런 폴리페서를 규탄하는 글을 연일 게재하고 있어서 뜻있는 교수들은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런 교수들의 수가 많아지면 대학의 면학 분위기는 크게 훼손될 것이 너무나 뻔하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현상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선진국 명문대학의 사례를 보고 우리 교수들도 하루 속히 반성하고 거듭나야 할 것이다. 외국 대학 교수들은 자기의 연구 및 강의 생활을 저해하는 어떤 외부 보직이나 위원직도 수락하지 않는다. 설령 학내 보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정치판을 찾아다니며 자기의 활동 영역을 개척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우리 대학은 보직자리만 해도 전체 교수의 20% 이상이 보직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되려면 이런 학내 보직의 비율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미 외국의 여러 명문대학에서는 여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노벨상 수상자를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한 이유가 이런 풍조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2. 주중에 골프치고 등산하는 교수도 있다니 ...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일본 대학으로부터 초빙되어 13년 동안이나 교수생활을 하고 귀국한 H 교수를 만난 일이 있다. 그곳 두 대학에 근무하는 동안 강의하고 또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하는 등 매우 생산적으로 교수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가 참으로 인상적이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은 주중에는 물론 주말에도 골프를 치지 않더라는 것이다.

연전에 4년 임기를 마치고 평교수로 돌아간 J총장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임기 중에 괴로웠던 일 중의 하나가 우리 서울대학교에는 아직도 학교 교수실에는 거의 나오지 않은 채 외부 활동에만 몰두하는 교수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었다. 그가 이런 말을 출입기자들에게 흘리자 일부 교수들의 거센 항의 때문에 마음고생도 컸다고 하였다. 주중에 골프를 치고 등산을 다니는 교수들도 있으니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강한 질책성 발언도 하였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문제가 아직도 논의 단계에 있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아직도 교육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이 어떻게 주중에 근무지를 떠나서 외부 활동이니, 골프니, 등산이니 하고 다녀서야 되겠느냐 말이다. 기강이 풀려도 이만저만 해이해진 것이 아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지성인 중의 지성인이다. 누구의 감독이나 간섭을 받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골프가 건강 관리에는 좋은 운동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의 골퍼를 보는 눈길이 곱지 않은 것은 그것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에 골퍼를 치기 때문이 아닐까? 언제나 말썽이 난 부분은 주중에 골퍼를 치는 정치인, 기업인과 일부 국민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었으니 말인데 얼마 전에는 3·1절날 골프를 치러 부산에 간 어떤 고위공직자가 있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이번에는 태풍과 장마 피해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강원도 수해 현장 부근에서 그것도 주중(목요일)에 작당하여 골퍼를 친 모정당 관계자들의 작태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그런 가운데 ‘왜 우리는?’ 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가 주중에 연구와 강의를 팽개치고 골퍼를 즐길 수 있다는 말인가? 꼬장 꼬장해야 할 선비의 자세가 아닌 시중 잡배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요즘 인천국제공항을 가보면 외국으로 골프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내 돈으로 내가 가서 공을 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나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우리 백성이 언제부터 너도 나도 골프에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지, 모두가 한번쯤 반성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서울대학교 장기 발전 계획인 ‘비전 2025’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려면 주중에 벌이는 비교수적 기능은 거둬치워야 할 것이다.

### 3. 우리 서울대학 건물은 밤새 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서울대학교가 정녕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성장·발전하려면 먼저 교수들이 세계 초일류급 교수들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도 세계 최상급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대학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들의 작태는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고, 뒤에서 논의할 학생들의 학습량을 대폭 늘리고 난 다음, 우리 서울대인 모두가 눈에 불을 켜서 열심히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면 오랜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도 세계가 알아주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 교수들의 연간 SCI 우수논문 발표 편수는 0.6편인데 우리나라의 그것은 0.3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더 많은 우수논문을 발표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의 모든 건물에는 밤새도록 전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교수들도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학문 연구에 몰두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교수들에게는 대학 당국이 성과급이나 정년보장제 등을 활용하여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년 전에 우리 대학교 자문위원회가 매년 서울대학교 교수 15%의 물갈이를 총장에게 건의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을 보면 각 정당마다 보통 30~40%의 현역을 물갈이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대학교도 15% 이상의 물갈이를 계속해야 비로소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 4. 표절시비와 논문 조작 없는 청정 캠퍼스의 조성

근년에 들어 대학 교수들의 정계 진출 빈도가 크게 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짜증스러울 정도로 자주 논문이나 저서의 표절시비가 일고 있다. 선비가 어떻게 남의 글을 훔치고 남의 책을 베껴서 자기의 것인 양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한심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학문사회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는 일로 학문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될 죄악이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처럼 남의 정신노작을 훔치는 사람들은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내로라하는 교수가 남의 책을 베껴서 쓴 책으로 저작상을 타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보았다. 도대체 표절은 왜 하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필자도 교수 생활을 오래한 사람이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교수들이 학생들의 커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비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는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고 허위 논문을 유명 학술지에 발표하는 H 교수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올린 우리 대학의 학문적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이런 일도 표절시비처럼 대학사회에서는 영구히 배제해야 할 학문적 범죄행위라고 단언하고 싶다. 원래 연구논문이란 테스트하고자 하는 가설과 목적을 뚜렷이 하고 이를 뒷받침할 실험 과정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얻어진 연구 결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다음 정리하여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한 사람의 편견이나 선입관이란 어떤 형태로든 작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데이터의 조작이나 허위사실(사진 포함)로 논문을 써서도 안 된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정직한 인간성을 갖추어야 한다.

무릇 모든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0여 년 동안 600명이 넘는 과학자가 노벨상을 탔으나 아직도 세계 어느 나라의 공장에서 쌀이나 고기를 합성하고 생산한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무릇 모든 암·수성을 가진 모든 짐승의 성비는 50:50이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이걸 바꾼 일은 결코 없었다. 과학이 이런 문제까지 다 연구 사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학문적 한계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 주변, 특히 권력의 핵심에 모여 있는 교수 출신 인사들은 표절시비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저들의 명예를 크게 상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비록 우리 서울대학교가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대학에 이르겠다는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교수사회는 결코 표절시비나 논문 조작을 하지 않는 청정 캠퍼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교수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을 향하여 양심과 도덕성을 외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학문 분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교수

들이 모인 그 대학이 바로 세계 초일류 대학이 아닐까?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 대학생의 학습량 크게 늘려야 한다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명예교수 나 형 용

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6·25 동란이 휴전된 다음 해 봄이었다.

그 당시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또 얼마나 어려웠던 시대이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 상경할 때였는데, 야간 완행열차를 이용한 탓이라 생각되지만, 저녁 8시경에 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이튿날 아침 8시경 서울역에 도착했으니, 대전에서 서울까지 무려 12시간이 소요되는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대학에 입학했고, 또 강의를 듣게 되었다. 첫째에는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사범대학 부속중·고등학교 교사에서, 다음 해부터는 성북구 공릉동에 있는 공대 옛 건물에서 강의를 이루어졌지만, 이 시기의 대학 강의실은 책상과 걸상과 흑판뿐이었고, 실험실과 교재도 변변치 않아 주로 교수는 불러주고 학생들은 받아쓰기 식의 강의를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니 제대로 공부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고 또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처지를 후회해 본다.

그러나 나의 2년 선배 되시며 또 평소 존경하는 분으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을 역임하신 한인규 박사의 미국 유학 회고담을 들어 본다. “염소가 물똥 싸는 날은 있어도 수학 교수가 숙제 안 내주는 날은 없다”라는 말이 학생들 간에 유행할 정도로 학습량이 많았고, 또 어찌나 시험이 잦았던지 지금 생각해도 괴로운 추억뿐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교수들이 대학생들을 호되게 훈련시켰고 또 학생들은 기초과목을 충실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한인규 교수는 자신이 학생들로부터 실력 없다는 평을 듣지 않았다고 웃으신다. 또 대부분의 미국인 교수들은 미리 작성·배부한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와 실험에 충실하였고, 강의시간 몇 분 전에 강의실에 나타났으며 강의시간은 예외 없이 강의 종료시간까지 계속되었던 것이 기억된다고 말씀하신다. 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와 같은 큰 행사도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귀국 후 40여 년 간 강의하면서 미국 대학에서 배운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휴강하지 않았고 또 강의계획서에 나타난 대로 모든 분량의 내용을 전달하기 전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무섭고 까다로운(?) 교수생활로 일관하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

얼마 전 우리나라 주요 일간지와 언론매체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